

예수의 생애 마지막 7일 대사 없이 오직 노래만으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50주년 맞아 18~19일 익산예술의전당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가 음악적 한계를 뛰어넘은 감동의 무대로 익산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익산예술의전당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총 3회에 걸쳐 대공연장에서 예수의 생애 마지막 7일을 대사 없이 오직 노래만으로 전개하는 성 쓰루(Sung-Through) 뮤지컬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를 무대에 올린다.

1971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한 당시에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은 등 혁명적인 뮤지컬로 손꼽힌 이 뮤지컬은 50주년 기념 공연이자 7년 만에 한국어 공연으로 화려하게 귀환했다.

예수를 수퍼스타로 묘사하고 추종하는 군중 등 모든 캐릭터들이 종교적 관점이 아닌 운명 앞에서 고뇌하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완성한 차별성과 탁월함이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7일간의 여정을 담고 있는 세계적인 뮤지컬은 극 중에서 무대를 휘어 감는 장중한 음악들로 난이도가 높기로 유명하다. 지저스의 솔로 넘버 '겟세마네(Gethsemane)'를 가창하기 위해서는 남성이 평균적으로 낼 수 있는 최고 음역대를 넘어서는 3옥타브 솔의 음정을 소화해야 한다. 그런 만큼 이번 공연의 캐스팅 라인업은 음악적 최고의 경험을 선사할 수퍼 캐스팅으로 기대를 모은다.

지저스 역에 완벽하고도 안정적인 노래와 연기력으로 극의 무게와 중심을 잡아줄 마이클 리와 임태경이 열연을 하게 되며, 지저스와 대적하는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인 유다 역에는 한지상·윤형렬·백형훈이 함께 한다.

지저스를 만나 변화하는 삶을 마주하고 그에게 유일한 위인이 되는 마리아 역에는 가창력과 연기력을 갖춘 김보경·장은아·제이민이



익산예술의전당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총 3회에 걸쳐 대공연장에서 예수의 생애 마지막 7일을 대사 없이 오직 노래만으로 전개하는 성 쓰루(Sung-Through) 뮤지컬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를 무대에 올린다.

나서고, 꿈을 통해 지저스의 처형 사건 중심에 자신이 있음을 예견하는 총독 빌라도 역의 김태환·지현준은 묵직한 존재감을 보여주게 된다.

이밖에 헤롯 역에 육현욱·전재현, 가이바 역에 이한필·김바울을 비롯한 모든 배우들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작품은 세계적인 두 거장인 작사가 팀 라이스(Tim Rice)와 작곡가 앤드루 로이드 웨버(Andrew Lloyd Webber)가 콠비를 이뤄 청년 시절에 선보였다.

특히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대표작인 뮤지컬

'캣츠'(1981), '오페라의 유령'(1986)이나 팀 라이스의 섬세한 가사로 유명한 '라이온킹'(1997), '아이다'(1998) 이전에 발표된 작품인 만큼 두 거장의 탄생과 동시에 전설의 무대, 신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화탄이라는 점은 또 다른 감상 포인트가 될 것이다.

공연 예매는 익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익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 회원에 가입하면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공연 관람 가는 나이는 8세 이상이며, 자세한 내용은 익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전화(063-859-3254)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경력단절여성 일경험 기회 제공... 새일여성인턴 125명 모집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전정희)는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새일여성인턴 12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혼인·임신·출산·육아 및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으로 장기간 경력 단절됐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미취업 여성이 대상이며, 기업에서 정규직·상용직으로 전환채용 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인턴 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높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와 기업은 반드시 새일센터에 구인·구직 등록해야 한다. 기업은 320만원, 참여자는 60만원 등 총 380만원을 지급한다.

새일여성인턴을 채용한 기업에는 인턴채용지원금(한달 80만원씩, 3개월간 총 240만원)을, 인턴기간 종료 후에는 상용직·정규직 전환을, 이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에는 추가로 새일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참여 기업은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0인 미만이어야 한다. 또 최근 1달 이내 권고사직이 없어야 하며, 근

무시간이 주당 35시간 이상인 전일제와 주당 20~35시간 미만인 시간제 등이다.

인턴 참가자격은 새일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미취업 여성으로 저소득층, 결혼이민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을 우선 연계한다.

전정희 센터장은 "인턴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재정에 도움이 되는 새일여성인턴사업을 통해 여성취업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제활동을 활성화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기업과 구직자 모두의 만족도를 모두 높일 수 있는 인턴제도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취업지원팀(063-254-37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기하학적 모듈
반복적인 문양
내면 욕구 분출

유승욱 '윤희'
기린미술관서
이달 한달간

기린미술관(관장 이현옥)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유승욱 서양화 작가의 '윤희'를 전시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에 30여년간 몸담아온 교직을 은퇴하고 전업작가로 나아가는 새로운 도전기이다.

유승욱 작가는 2000년 첫 개인전을 통해 화단에 등단했다. 그동안 민족적 내면의 근원을 찾아 일월오봉도, 추계, 오방색, 민화, 윤희사상, 민속적인 강강술래, 향아리 등의 한국적인 소재를 단 순화하고 광면화된 구성과 서정적인 감수성으로 승화시켰다.

그러나 작가는 새롭게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형상은 초신성같은 광원이다. 이 광원은

만다라와 윤희를 상징하는 거대한 원으로 그 주변을 무한 반복적으로 기와집을 반복적으로 그려준다. 마찬가지로 추상을 향한 작가의 무의식적인 반복 행위는 기하학적인 모듈 행위로 이어진다.

기하학적인 모듈 색면과 반복적인 문양은 유승욱 작가의 자유의지에 의한 내면 욕구가 분출된 것이자 무의식 행위가 지배적으로 작용하면서 생성된 것이다.

유승욱 작가는 2000년 종로갤러리에서 1회 전시회를 시작으로 이번 기린미술관에서 20회째 개인전이며 매년 1회씩의 전시회를 열고 있다. /양은경 기자

풍년기원 새해 건립 곳 모금액, 불우이웃에게

부안 변산 풍물패 '천동소리'
450만원 상당 성금으로 기탁

부안 변산 풍물패 '천동소리'(단장 김성근)는 지난 6일 변산변사사무소를 방문해 1월 27일부터 3일간 풍년기원 새해 건립 곳을 통해 모금한 450만원을 관내 저소득층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써달라며 기탁했다.

변산 풍물패 천동소리는 2000년도에 변산면 마포초등학교를 근거지로 창단했다.

현재 3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안군 문화예술행사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동안 매년 1,000만원씩 불우이웃돕기를 해왔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고 있다.

김성근 단장은 "매년 해왔던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을 코로나로 인해 2019년부터 작년까진 진행하지 못해서 너무도 안타까웠지만 늦게나마 이렇게 다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하고, 그간 자체적으로 불



우이웃돕기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쓰임새 있게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어서 변산면을 찾아가며 지속적인 모금 활동을 전개할 것을 약속했다.

하진상 변산변장은 "이웃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때, 이렇게 뜻깊은 선행을 통해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한 성금은 귀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전달한 모금액은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 취약세대에 요긴하게 쓰일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